

현대중공업 경비대, 노동자 폭행에 쟁의행위 방해까지 금속노조 현중지부 “사측 책임자 사과하고 경비대 처벌해야”

HD현대중공업 경비대가 쟁의행위 중인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사용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이 노동조합 단체행동을 막고 조합원들을 다치게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파업 방해 폭력경비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의 경비대 동원과 폭력 행사를 비판하고 책임자 직접 사과 등을 요구했다.



백호선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을 했는데, 사측이 경비대를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썼다”라며 “조합원 머리가 찢어지고 다쳤다. 이런 일이 2024년에도 여전히 발생하다니 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0일 현대중공업지부는 오후 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내에서 오후 1시 30분 파업 집회를 열었다. 오후 2시께 회사 경비대가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강제로 떼어놓기 시작했다. 조합원 두피가 찢어지고 골절상을 입었다. 경비대에 맞아 실신한 조합원도 있다. 지난달 10일 파업 집회 때도 경비대가 들이닥쳐 난동을 부리고 조합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백호선 지부장은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 문제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경비대 행태가 용역 강패, 폭력집단과 똑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호선 지부장은 이번 폭력 사건이 경비대 단독 행동일 리 없다고 단언했다. 백 지부장은 사측에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 책임자 직접 사과와 ▲이상군 HD현대중공업 사장 사퇴 ▲폭력 사건 재발 방지 ▲폭력 가해 경비대 처벌 등을 요구했다. 또 쟁의행위 방해 등 사측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의 임단협 해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백호선 지부장은 “경비대 폭력 사건에 나타나듯 사

측은 노동조합을 동등한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조선업 호황은 사실상 사측만 누리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 요구는 절대 과하지 않은데, 사측은 노동자들 목소리를 무조건 무시한다”라고 비판했다.

욕설 난무, 불법파견, 위장도급 ... 2024년에 무슨 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 직접고용 촉구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10월 10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불법파견·위장도급 박살! 동서페더럴모굴 특별근로감독 실시! 경기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400여 명 경기지부 확대간부는 현대위아시화지회 투쟁을 끝까지 엄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지난 8월 30일 동서페더럴모굴 모듈 어셈블리 공장에서 일하던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 33명 전원이 해고됐다. 열악한 노동조건, 인격 모독적인 환경에 맞서 지회를 설립한 지 20일 만이다. 조합원은 ‘에이쓰리에이치알’이라는 위장도급 업체로 고용되어 원청인 동서페더럴모굴의 직접 작업지시를 받으며 일했다. 불법파견 혐의가 짙다.

지회는 9월 1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동서페더럴모굴을 고소고발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지회는 노조

탄압과 부당하고 정황이 명백하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규선 노조 경기지부장은 노동부를 향해 “동서페더럴모굴의 불법파견을 철저히 조사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 조치하라. 정규직 입사인 양 공고했으나 도급업체로 채용해 온갖 착취를 일삼았다”라며 “동서페더럴모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노조 만드니 길거리로 내모는 행태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다”라고 촉구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동서페더럴모굴 사측에 “불법파견 인정하고 해고된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직접고용 이행을 위한 교섭에 나와라”고 요구했다.

김대호 현대위아시화지회장은 “폭언과 욕설, 무리한 잔업과 특근 강요 등을 참을 수 없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사측은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고 경찰까지 동원해 출입을 통제했다. 2024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지회장은 “현대위아는 부도덕한 상황 책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동서페더럴모굴의 위장도급·불법파견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제는 스스로 가치를 외칠 때다”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고은하 노조 부위원장은 “욕설하는 현상이 2024년에도 여전히 있다. 19만 금속노조 뒷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싸우자. 불법파견, 위장도급 철폐할 때까지 질풍 같은 용기로 끝까지 힘차게 싸우겠다”라며 연대의 말을 전했다.